

쌀 소비 부진 해외시장서 답 찾다

농협 전남본부, 쌀 200t 수출
풍광수토 美 5개 매장서 판매
새청무미 말레이시아 첫 진출
지속 수출위해 최선 다할 것

코로나19 영향으로 쌀 소비가 부진하면서 쌀 농가들이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로 수출되는 전남 쌀은 200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국가는 미국,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다양하다.

가장 먼저 수출 소식을 알린 전남 쌀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이다. 지난 달 풍광수토는 영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미국 수출용 선적 기념식을 가졌다. 수출 계약물량은 총 10t으로, 이번에는 5t이 선적돼 수출길에 올랐다.

풍광수토 쌀(4kg)은 미국 상설 전시 판매장인 한남제인 4개점(플러툼점, S-마트, L.A점, 뉴저지점)과 아셰 플라자 시카고점 등 총 5개점에서 소비자를 만난다.

같은 달 전남 벼 품종 새청무미로 만든 '탐진강 찰진쌀 새청무미(미)' 1400포(4.5t)도 첫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 갔다.

총 물량은 90t으로, 지난 달 강진군농협미국종합처리장에서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 전남 생산 쌀 200t이 미국,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된다. 지난 달 말 강진에서 열린 '탐진강 찰진쌀 새청무미' 말레이시아 수출 기념식. <농협 전남본부 제공>

'탐진강 찰진쌀 새청무미'는 지난해 2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광주·전남미국종합처리장(RPC)은 영협회, 전남쌀대표품종생산자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에 들어갔다.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습득 및 교육과 ▲종자용 원료곡 공급 및 수매자금 지원 ▲판촉활동 강화 ▲단일품종 유통 및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펼쳐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 달 23일에는 해남 수출쌀 전문매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가바쌀 2.7t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가바쌀은 올해 미국·중국·싱가포르 등지로 약 80여t이 추가 수출될 예정이다. 기능성 아미노산인 가바(GABA) 함유량이 일반쌀보다 8배 이상

높게 포함돼 있어 가바쌀이라 불린다. 이 쌀은 지난해 미국 유기인증(USDA)을 획득, 일반 쌀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 수출된 쌀은 아마존 등 인터넷 쇼핑몰과 캘리포니아 소재 한국 프리미엄 농산물 전문판매장인 '올타리몰'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수출업체인 평강농도친환경경영법인은 2018년부터 '하양 가바쌀'이란 브랜드로 미국 수출을 시작, 지난해까지 72t을 수출하는 등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고흥 흥양농협RPC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상품 '해맞이 쌀' 20t을 몽골로 수출한다. 장성통합RPC 벼 품종 '조

명1호'로 생산한 쌀 18t은 러시아 소비자들과 만난다. 장성쌀은 5년 연속 러시아 수출을 기록해 현재까지 해외 수출 규모가 총 256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 '조명1호'는 '2021년 하계 정부보급종'으로 선정돼 165t이 전남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명1호는 조생종으로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수발아(이삭 찢아기)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새청무 쌀의 육성과 보급 그리고 마케팅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지속적인 수출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지자체 추가 인하율도 적용

농번기인 4~7월 한시적으로 지자체 농기계 임대료가 절반 이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는 농번기 4~7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비용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하루 임대료가 1만원에서 21만원이었던 농기계는 4~7월 5000원

~10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추가 인하율 15%도 적용되면 같은 기계를 4000원~7만9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0~20% 정도 증가했다.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해독·항산화에 좋은 돌미나리 어때요"

농협 광주본부·동곡농협
돌미나리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동곡농협은 '돌미나리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3월부터가 제철인 돌미나리는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돌미나리 4kg의 도매시장 가격은 지난 1월(2만256원)보다 65% 급락한 7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동곡농협은 돌미나리 4kg

한 상자를 6000원에 판매하며 생산농가를 지원해왔다. 광주지역 농협 13곳과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돌미나리 4000상자를 주문 구매했다. 돌미나리 구매 관련 문의는 동곡농협 판매계(062-943-3015)로 하면 된다.

강현구 광주본부장은 "돌미나리는 해독 및 항산화 작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미나리를 많이 애용해 건강을 챙기고 농민들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업체 모집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업인과 농식품업체의 협력모델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 올해 신규 업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농공상기업은 국산 원재료 위주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aT가 지난해까지 지정 농공상기업은 총 474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체 식품기업보다 국산 원재료 사용비중이 25%포인트 높은 72%를 기록한다. 올해 농공상기업

신규업체로 선정되면 aT로부터 판로확대와 자금융자, 바이어상담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전용판매관인 용산역 내 '찬돌마루' 매장을 포함해 우체국 쇼핑몰, 오아시스마켓 내 전용판매관에도 입점할 수 있다.

aT는 농공상기업 판로 확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우체국쇼핑 온라인마케팅 연도대전'에서 판매개선 부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규 가입 희망 업체는 식품기업지원시스템(food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노조, 코로나19 위기극복 농산물 사주기 운동

활동비 절감 3억원 구매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이 3억원 상당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인다.

공사 노조는 노조활동비 절감분을 활용해 전국 지역본부 12곳과 135개 지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급식 납품이 막힌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운동

을 펼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과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박종석 위원장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급식 매출 40% 급락...농협, 친환경 농가 신규 판로확보 총력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꾸러미 판매 등 다양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 납품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1200여 곳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전남 농가의 급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급락했다.

전남본부는 일부 농가는 판로를 잃어 경작지를 갈아엎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본부는 농협 모든 계열사를 동원해 '친환경농산물 현장 지원반'을 만들어 신규 판로확보에 나섰다.

현장 지원반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을 추진하며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농업 관련단체, LG유플러스 등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500개를 판매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친환경농산물 꾸

러미를 구매하는 동시에 군납용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고 있다.

현장 지원반은 지역 기업체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안서를 보내며 추가 판로를 발굴하고 있다.

전남본부가 운영하는 농협 호남권친환경경중합물류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꾸러미 8000상자 가운데 4000상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 4억원 상당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은 농협 하나로유통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를 만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전남본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호남권친환경경중합물류센터에 일손 돕기를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나주 친환경경중합물류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작하는 모습. <농협 전남본부 제공>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